



장안농산 우수농장의 날 개최

취재 : 윤현상 홍보개발부장

“소비자의 기본 요구인 안정하고 깨끗한 우유생산과 아름다운 목장을 조금씩 만들어 가는 것”이 소망으로 생각하고 있는 장안농산에서 낙농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하제일 사료와 함께 우수농장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낙원가축인공수정소를 개설하고 있는 한길우 소장과 홍의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권순균 원장이 의기투합하여 1997년 협업형식으로 장안농산을 설립하였다. 목적은 혈통등록우 육성하여 낙농가에게 분양하여 한국낙농의 선진

화에 기여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취지 아래 대양목장(최진영, 경기 평택시)과 서광목장(장익용, 전남 영암군)에서 혈통등록우를 시중가격에 2배 이상을 지불하고 입식하여 육성하였으나, IMF의 영향으로 1999년 육성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 후 2000년에 한국종축개량협회 유우군 검정사업에 참여하였으며, 2003년에는 착유우와 경산우를 분양하기 시작했다.

목장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2002년 9월 결핵이 발생하여 사육하던 180두 전부를 살처분 했을 때라고 한다. 정신 없이 매몰 후 집에 들어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것처럼 어려운 시기에 오뚜기목장(대표 김유현)의 조언과 경험을 겨울 삼아 극복할 수 있었고, 2002년 12월 육성우와 착유우 등을 일괄 구입하여 목장을 재개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한길우 대표는 아름다운목장을 위하여 나무를 심고, 연못과 텃밭 등을 만드는 일에 관심을 두지만, 권순균대표는 젓소만 생각하고, 그 이외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성격으로 두 사람의 성격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앞으로 한국낙농 발전에 밑거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1> 장안농산 산유성적 변화

산유량(kg)	28.7	30.9	32.4	36.3
번식간격(일)	464	450	432	433
분만경과(일)	239	174	162	226
체세포(천)	173	165	261	86
유지방(%)	3.9	4.0	4.2	4.0

장안농산 목표

1. 혈통등록우의 분양으로 한국낙농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2. 안정적으로 3톤/일 이상의 우유를 생산화
3. 14개월 이내 번식간격을 유지
4. 이름답고 깨끗한 친환경목장 운영
5. 기록관리 및 경영분석 철저



한길우, 권순균 공동대표

<표 2> 사료섭취량 및 유사비

장안농산	36.3kg	25,410원	9,230원	36.3%
일반농가	28.0kg	19,600원	8,400원	42.9%

※ 유대단가 700원, 건물섭취량 27kg, 일반농가 산유량 28kg 기준, 80두 착유기준 일반농가와 비교하여 연간 169백만원 추가 수입 발생 (장안농산 우수농장의 날 행사발표자료 참조)